불자 세상보기

이 희 재
광주대 철학과 교수

속셈 빠른 중국을 보며

최근 중국 산동과 충칭 등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중국응원단들이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이슬람권의 중동의 여러 나라를 편드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씁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의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으로 일철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변방의 주변국들을 오랑캐로 표현해 왔고, 한민족을 동이(東夷)라 하여 동쪽 오랑캐라 칭하는 오만을 부려왔다.

그러나 중국은 축구에서만큼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공한증을 느낀다고 한다. 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큰 나라답지 않은 '치사한' 매너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자신들의 변방사라느니 혹은 중국사라느니 하며 억지주장하는 우스꽝스런 태도에 중국우월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오만이 느껴져 더욱 그렇다.

몇 년 전 한국의 불교단체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을 때 중국은 우리 정부를 위협해 한국 입국을 막았던 일을 상기하면, 요즈음 고구려사 왜곡 등은 상호존중의 태도가 아니라 독선적이며 일방주의적 태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대사속의 경이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오만과 독선에도 불구하고 시종 자비심으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의 겸손과 미소다. 나라를 빼앗긴 원한과 복수심을 극복하고 오히려 중국을 미워하지 않는 자비정신에서 불교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적 지도자이다.

중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날 테러와 반테러의 반문명적, 반생명적 풍토의 배경에는 종교적 배경이 깔려있음을 볼 때, 중국의 압제에서 보여주는 달라이라마의 미소는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중국의 편협한 중화사상에 매몰되어 티베트의 문화, 예컨대 조장이나 일처다부의 풍속 등에 대해 오해하고 야만시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풍속이 불교의 윤회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중국이 아닌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 문화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찬탄에서 유래한 것임을 생각할 때 같은 불교인으로 그 편협했음이 부끄러울 뿐이다.

축구에서 보여주는 중국관중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우리 문화유산이 산재한 지역이 현재 자신들의 통치영역에 있다고 해서 억지를 부리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티베트를 강점한 중국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티베트보다는 중국문명에 대해 동질적이고 친근감과 우호의식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장단에 놀아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첨단무기로 무장한 초강대국 미국도 그 일방주의로 인해 더이상 도덕적 정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오히려 첨단무기와 자살테러가 없이 오로지 자비심과 비폭력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염원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소가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대다.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생명경시와 폭력으로 얼룩진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이 실현되기를 발원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여성 불자들의 '희망' 살리기

흔히 한국불교는 보살불교라고 말한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시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는 여성불자의 신심 위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혹 이 보살불교가 한국불교의 문제요 병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이다. 조선조 오백년의 암흑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 그저 불교가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던 그 시기를 여성불자들의 신심으로 버텨온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좀 더 향상된 의식 위에서 신행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지 못한 종단과 불교계 지도층의 나태함에 있다. 불교를 지탱해 온 그들의 장한 신심을 시대상황에 맞는 올바른 신행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성불자들 스스로 깨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전국의 여성불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불자 의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여성불자들의 힘이 한국불교를 바꾸는 힘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새로운 태동의 소식이다. 한국불교의 토대를 이루는 여성불자들을 아래로부터 바꾸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환경에 알맞은 수행과 신행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기복 위주의 신행이 지양되고, 진정한 불교의 생활화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불교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성불자들이기에, 그들의 변화야말로 한국불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있어 지원은커녕 거의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불교계와 종단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불교여성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불자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여성불자들의 힘을 올바로 이끌어 한국불교를 바꾸어 나가려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샤카족은 붓다인 나를 낳았으니 나의 가지요 잎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이렇게까지 고국이 우리를 반겨줄지 몰랐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한국인 부모를 사랑합니다."

8월 5~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 한인입양인대회' 참석자들은 고국의 따뜻한 관심과 열띤 환영에 감격스러워했다. 15개국서 온 430여 입양인들은 가족찾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조국의 그늘이 시원함'을 피부로 느꼈으리라.

그동안 해외에 보내진 입양인들은 15만명이 넘는다. 50~70년대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80년대 이후는 미혼모에게서 난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뿌리깊은 혈통주의와 입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해외입양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고국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핏줄애를 토로한다. 그들 다수가 교육수준도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다. 따라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조국인 한국과 입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한다.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에다가 진한 조국애마저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또다른 소중한 인적 자원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하고, 모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에 대비되어 원정출산, 도피성 유학, 기러기 아빠, 이민 등이 날로 성행하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일면이 떠올라 입맛이 씁쓰레하다. 입양인들에 대한 관심이 반짝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경숙(취재부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스님 노후문제 해결 나서자

스님들 중 64%가 '노후 건강 걱정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부처님의 진리를 펼치는데 전념하여야 할 스님들이 노후생활을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스님들이 노후에 절에서 지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병폐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 문제는 사실 작은 일은 아니다.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젊었을때 재산을 모아야 하고 제자를 많이 두려고 한다.

토굴로 불리는 사설암자를 마련하려고 한다거나 불필요한 불사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자가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불교를 세속화시키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사찰에서 각종 불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노후거처를 마련하는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책임을 따지자면 한사람 또는 한 부류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사부대중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가 나서야할 일이다. 종단은 종단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대로 할 일이 있다. 각자 위치에서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노후문제를 고민해보자.

모든 스님들이 노후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이나 포교, 강론 등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진공(붓다뉴스)

불교계 단결된 모습 보여주길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종교편향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많은 불교단체가 이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의 대응은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범불교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개인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미진하지만 사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일단락 지은 반면, 최근 동산반야회 등 7개 불교단체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범불교대책위원회의 결정과 최근의 손해배상소송은 같은 불교계의 성명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반되어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도 불교계 노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120여개의 불교계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범불교대책위원회가 불교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손배소송이 뒤늦게 터져 나온 것일까.

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교단체들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지희(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개발보다 환경이 먼저다

지율 스님의 세 번째 단식이 벌써 한달을 넘겼다. 10년만의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지율 스님은 뭇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시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단식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착잡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올 뿐이다.

사실 지율 스님의 단식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터널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이다. 부실하게 실시됐던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여론 앞에서 꿈쩍도 않던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참여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결국 지율 스님을 다시 청와대 앞으로 데려온 셈이다.

사실 지난해 불교계의 명분 없는 양보로 북한산 관통도로와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환경운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던 지율 스님의 모습에서 한국불교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었다. 부디 지율 스님이 건강하게 다시 수행자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자.

이영수(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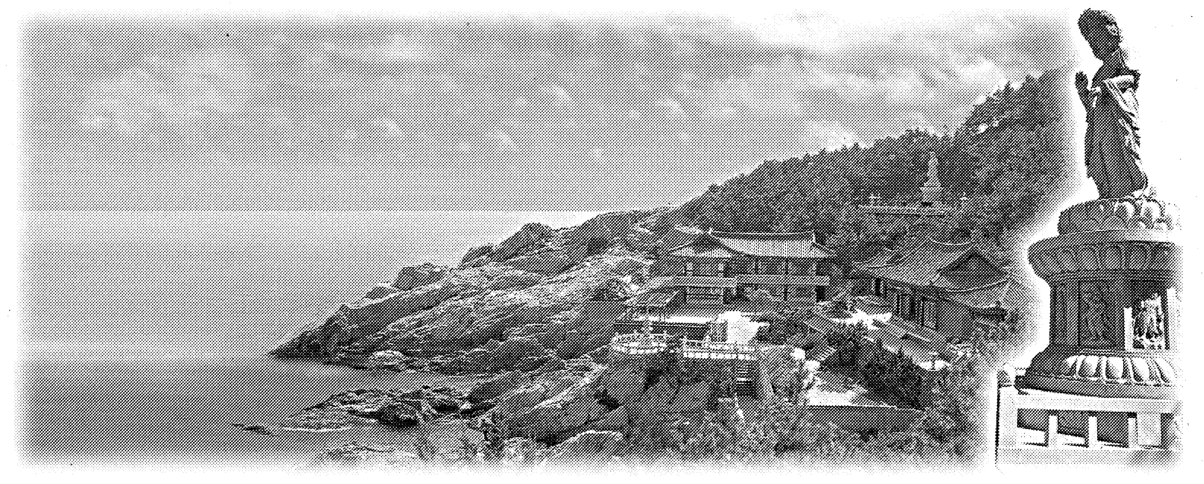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